

연장에 또 온 KIA... 벼랑 끝에 선 가을야구

롯데와 연장 11회 10-11 역전패
3회 8득점 빅이닝 만들고도 불펜 난조
승차 없는 5위...4경기 남아



KIA 타이거즈가 벼랑 끝에서 '5강 싸움'을 벌이게 됐다. KIA가 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연장 11회말 10-11

끝내기 패를 당했다. 앞선 7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연장 10회 박건우에게 끝내기 스리런을 허용했던 KIA가 다시 한번 연장 승부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결과로 KIA의 승률은 0.4857, 롯데의 승률은 0.4852가 됐다. 패자 KIA는 승차 없는 5위가 되면서 벼랑 끝에 섰다.

이날 양 팀 선발이 일찍 물러나면서 불펜 힘겨투기가 진행됐다.

선발 임기영이 연속 불넷으로 첫 이닝을 시작했다. 땅볼로 1사 1·3루, 이대호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6-4·3 병살타가 기록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전준우의 발이 베이스에 먼저 닿았고, 3루주자 조홍석의 득점이 인정됐다. 이어 임기영이 채태인의 우측 2루타로 다시 점수를 내렸다.

2회말에도 불넷이 실점으로 이어졌다. 선두타자 전병우를 불넷으로 내보낸 임기영이 번츠의 좌측 2루타로 세 번째 실점을 했다.

그리고 폭풍 같은 3회가 찾아왔다.

1사에서 버나디나가 불넷으로 출루했고, 나지완의 타구가 중견수 손흥석의 키를 넘겼다. 최형우의 헛스윙 삼진이 나왔지만 2사에서 KIA의 공세가 이어졌다.

안치홍의 타구가 다시 한번 중견수 뒤로 빠지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김주찬과 김선빈의 내야안타가 뒤 연속 불넷이 나오면서 밀어내기 로 동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3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박준태가 1루 선상 타고 흐르는 타구로 3타점을 만들며 롯데 선발 송승준을 끌어내렸다. 버나디나의 적시타까지 보태 8-3으로 승부를 뒤집었지만 KIA 선발 임기영도 3회를 넘기지 못했다.

선두타자 전준우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임기영이 이대호에게 중전안타를 내준 뒤 물러났다.

좌완 박경태를 시작으로 불펜이 가동됐다. 박경태가 허벅지 맞고 킁 공을 잡아 원아웃을 만든 뒤 황인준이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황인준이 3개의 피안타 불넷 하나로 4명의 주자를 홈에 불러오게 했다.

순식간에 8-7로 좁혀졌고, 6회말 3·4·5회를 잘 버



"던질 수 있겠어?" 9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 경기 연장 10회말 무사 1,2루에서 KIA 김기태 감독이 선수들과 마운드 위에 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텠던 4번째 투수 이민우가 선두타자 민병현에게 중전안타를 내주고 김운동으로 교체됐다. 좌익수 플라이로 1사는 만들었지만 김운동이 전준우와 이대호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8-8 동점을 허용했다.

8회초 KIA가 버나디나의 불넷으로 기회를 잡은 뒤 최형우의 좌전 안타로 9-8을 만들었다.

이어 7회를 삼자범퇴로 막았던 김운동이 8회 2사까지 책임졌고, 임기준이 8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9회 팻딘이 등판했다. 하지만 전준우와 이대

호의 연속안타에 이어 1사 2·3루에서 문규현의 희생 플레이가 나오면서 승부는 연장으로 향했다.

KIA에 행운이 따랐지만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10회초 시작과 함께 유격수 실책이 나왔고, 좌익수 전준우의 실책성 플레이까지 더해져 KIA가 무사 만루를 만들었다. 하지만 유재신의 헛스윙 삼진 뒤 안치홍의 중견수 플라이로 겨우 1점을 보태는 데 그쳤다.

10회말 마무리 윤석민이 나왔지만 리드를 지키지는 못했다.

선두타자 전준우에게 우전 안타를 맞은 윤석민이 신본기의 번트 타구를 잡아 2루로 송구했지만 세이프가 됐다. 3루 번트안타까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까지 몰린 윤석민은 민병현의 중견수 플라이로 10-10 동점을 허용했다. 끝내기 패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손아섭의 타구가 2루수 안치홍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고, 스타트를 끊었던 2루 주자까지

동시에 아웃됐다.

더 이상의 행운은 없었다. 11회초 황윤호, 최원준, 김민식이 삼자범퇴로 물러난 뒤 문경찬이 11회 말 마운드에 올랐지만 1사에서 대타 한동희에게 좌측간 2루타를 허용했다. KIA는 고의사구로 채태인을 내보내면서 병살타를 노려봤지만, 문규현의 타구가 좌측으로 향했고 전진 수비를 하고 있던 유재신의 키를 넘어가면서 끝내기 2루타가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시스터즈 인천 우승 한번 더

내일부터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박성현·전인지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8개국 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첫 우승을 합작한 '팀 코리아'의 주역 박성현과 전인지가 '인천 2연승'에 도전한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김인경, 유소연과 함께 '팀 코리아'를 이끄는 정상에 올랐던 박성현과 전인지는 오는 11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키어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리는 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인천 송도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둘 가운데 누구라도 우승한다면 LPGA투어에서 '인천 2주 연속 우승'이라는 진기록이 만들어진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박성현은 시즌 4승 고지를 넘는다. 세계랭킹 1위 곤히가와 상금랭킹 1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과 간격을 좁힐 기회다.

이번 시즌에 아직 우승을 신고하지 못한 전인지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전 전승을 따낸 상승세를 앞세워 우승 감점 해소에 나선다.

박성현은 2015년, 전인지는 2014년에 이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인천 2연승'을 이루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타수 등에서 1위를 달리는 쥘타누간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상대다. 2015년 이 대회 챔피언 렉시 톱슨(미국), 상금랭킹 1위



박성현



전인지

브룩 헨더슨(캐나다) 등도 경쟁 대상이다.

누구보다 '코리안 시스터즈'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디펜딩 챔피언 고진영, 72홀 최소타 신기록의 주인공 김세영, 2013년 우승자 양희영 등이 정상을 노크한다.

12명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선수들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다.

오지현, 배선우, 최혜진, 이정은 등 KLPGA투어 상금왕 후보 4인방은 LPGA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 해도 전혀 놀랄 이유가 없는 경기력을 갖췄다. 지금까지 이 대회에서 이미 5번이나 KLPGA투어 선수가 우승해 LPGA투어 직행 티켓을 땀다.

이 대회에 유일한 아마추어 출전자인 재미교포 노예림(17)의 잠재력 확인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연합뉴스

류현진, 이제 챔피언전 출격이다

다저스, 3년연속 NLCS 진출... 현지언론 3선발 전망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애플랜드 브레이브스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에서 6-2로 승리했다.

NLDS 3승(1패)째를 거둔 다저스는 2016-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NLCS 무대에 올랐다. 팀 역사상 13번째 NLCS 진출이다.

다저스는 13일부터 밀워키 브루어스와 7전 4승제의 NLCS를 치른다.

NLDS 1차전에서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펼친 류현진(다저스)은 5년 만의 NLCS 등판을 준비한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한 2013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NLCS 3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펼쳐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됐다.

2016년에는 재활 때문에, 지난해에는 포스트시즌 선발전에서 밀려나 NLCS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던 류현진에게는 아쉬움을 털어낼 기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등 현지 언론은 '3차전 등판'을 예상했다. NLCS 3차전은 16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두 신문 모두 "밀워키에서 열리는 방문경기 1, 2차전에서는 클레이턴 커쇼와 워커 블러가 선발 등판하고, 류현진은 홈으로 돌아와 3차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NLDS 4차전 승리의 일등 공신은 매니 마차도였다.

앞선 3경기에서 12타수 1안타로 부진했던 마차도는 4차전에서 5타수 2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마차도는 1회초 2사 1루에서 좌익수 쪽을 향하는 2루타로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애플랜드는 0-1로 뒤진 4회말 2사 2·3루에서 대타 커트 스즈키가 2타점 좌전 적시타를 쳐 2-1, 역전에 성공했다.

다저스는 6회초 반격을 가했다. 2사 2·3루에서 데이비드 프리즈가 중전 안타를 쳐 주자 2명을 모두 홈에 불러들였다.

3-2로 앞선 7회초에는 쉐기점이 나왔다.

무사 1·2루 타석에 들어선 마차도는 애플랜드 우안 채드 소보트카의 시속 154km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을 넘어가는 3점 홈런을 쳤다.

이날 다저스는 선발 리지 힐(4.1이닝 4피안타 2실점)이 5회에 흔들리자 과감하게 투수 교체를 했다.

이후 다저스 불펜진은 실점을 하지 않고 승리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